

■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계한 스님 지음민족사 펴냄9500원
불자들이 흔히 접하는 경전들의 기본 구조와 내용 등을 아주 쉽게 요약했다. <회엄경> <금강경> 등 48가지 경전의 성립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된 경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경전을 해설한 글들이 갖는 한계는 속맛을 보여주지 않고 겉모양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국대 교수로서 강단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 온 계한 스님이라면 그런 단점에 대한 걱정을 놓아도 된다. 2000년 <경전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냈던 책을 새롭게 수정 보완했다.

■ **인물불교사 김정민 글최병용 그림솔바람 펴냄9600원**
만화책이다. 부처님과 한 시대를 살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0대 제자를 비롯해 중국의 고승들과 한국의 선지식까지. 불교를 이끌어 온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림과 간결한 글로 구성했다. 위대한 스승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들의 전기를 통해 감동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일화를 보여 가르침을 받는 일도 즐겁다. 불교사를 지탱해 온 인물들의 생을 들여다보는 재미는 만화라는 방법에 의해 더 피부에 와 닿는다.

■ **성경에도 색즉시공이 있다** 박규현 지음열린길 펴냄1만원
미술디자인학부 교수가 <반야심경>을 해석한 책이다. 그리고 제목에는 '성경'이란 단어가 들어 있다. 언뜻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책을 접하지 않으면 영영 답을 얻지 못할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책은 <반야심경>의 대의를 설명한 것이 즐거웠다. 거기에 성경과 비교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반야심경>과 성경이 갖는 문자의 공통성에 전철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의 눈으로 본 우주와 인생을 얘기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 **기도의 비밀** 정담 스님 지음 | 수미산 펴냄1만 5000원
북한산 관음정사 주지 정담 스님이 수행하며 느낀 기도의 '비밀'을 담았다. 행복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정담 스님은 현재의 고통에 묶여 있는 사람은 미래의 행복을 차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스님은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집착을 놓아 버리고 '부처님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당부한다.

새싹 불자 눈높이 동화로 바른 마음 키워가요

조계종출판사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 외 3종 교계 최초 유아용 동화 경전 시리즈 선보여



"중도(中道)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못 먹고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게 된다. 적당하게 넣어야 음식 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 중에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조계종 출판사에서 어린이를 위한 도서 3종을 선보였다. 아이들을 위한 부처님 이야기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과 어린이 백유경 시리즈 1 <광대와 화가>(최가민 글·박지매 그림) 그리고 어린이 백유경 시리즈 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최가민 글·혜경 그림)이다.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동화작가인 이슬기씨가 재구성한 부처님의 일생이다. 그동안 어린이 불자들에게 위대하고 거룩한 분으로만 여겨진 탓에 막연하고

어려웠던 부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그렸다. 부처님의 전생을 시작으로 하여 탄생, 출가, 설법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행로를 안내한다.

특히 '기대'와 '화가'가 진리를 찾아 떠나는 길의 대목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 더 큰 사랑의 구현을 위한 왕자의 다짐이 조리되고 진실되게 구성된다. 읽는 어린이들이 진리를 찾아 떠나는 왕자의 결심에 자연스럽게 공감하도록 한다. 부러울 것 없는 왕자에서 평범한 수도자의 신분으로 스스로 낮음을 선택했던 부처님인 것이다. 수행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도 어린이들에게는 흥미진진하게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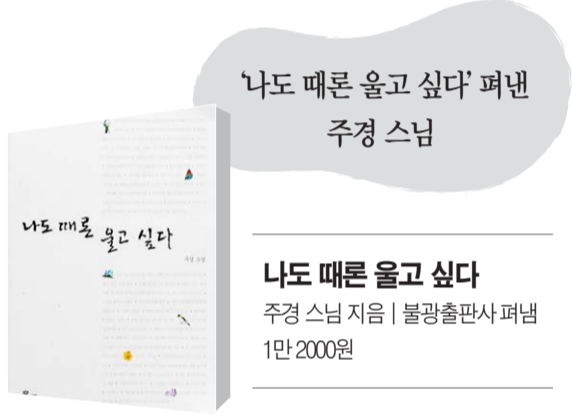
<광대와 화가>는 좋은 생각을 하면 실제로 좋게 보인다는 교훈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왕의 비단 옷을 훔친 도둑을 현명하게 재판한 왕의 이야기를 부처님의 대기 설법 일화로

빌어 재미나게 그려냈다. 5세기경 인도의 경전 <백유경>의 98개 우화 중 하나를 동화적으로 엮은 것이다. 읽는 재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와 질감의 오묘한 기법으로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다. 어린이 창의력 향상에 도움은 물론 왕의 지혜와 도둑의 어리석음은 큰 교훈을 안겨준다.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부처님. 우리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이란, 모두가 행복하게 착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신 부처님의 자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불교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게 된다. 더불어 부처님의 의지를 본받아 바른 마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는다.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부처님의 지혜로움에는 선생님의 마음도 스며들었다.

가연숙 기자 ornflower@daum.net

“스님과 재가자 간 간격 좁히고 소통하고 싶어”



자'에서는 강원·선방·성지순례길 만행 수행 이야기를, 2장 '사랑, 아름다운 인연'에서는 속가 가족과 부처사에서 키우는 4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3장 '그리운 도반이야기'에서는 수석사 행자도반·해인강원도반·동국대 불교학과 도반들의 일화를, 4장 '더불어 함께'에서는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를 각각 담고 있다. 특히 2장의 내용이 감동적이다.

다. 종단일로 바쁜 종회의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학부모로서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책의 제목은 '울고 싶다'지만 책 내용은 사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에 가깝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엿볼 수 있겠다. 스님은 1993년 월간 <불광>지에 '물처럼 바람처럼'을 연재하면서 '글'과의 인연을 맺었다. 분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에도 연재글을 썼다. 끊임없이 대사회 활동을 하고, 포교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글과 공부에 대한 끈은 결코 놓지 않은 스님의 첫 번째 결심이 바로 <나도 때론 울고 싶다>다. 열심히 살아온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또 종단의 중책을 맡고 있는 스님으로서 이 책을 쓴 주경 스님은 글로써 대중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다 말한다.

"세간과 출세간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스님과 재가자 간의 벽이 참 두텁더라고요. 스님과 때로는 자장면도 함께 먹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과의 거리감을 확실히 좁혀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주경 스님은 <나도 때론 울고 싶다>를 통해 한 걸음 더 대중에게 다가간 것 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님이 어떤 활동을 할지, 또 어떤 글을 쓸지 기대되는 것이 아닐까.

김강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돌
2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철	조화로운 삶
6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7	절음 기처가 절하는 법	철건	붓다의 마음
8	돈오선	월암	클리어마인드
9	오산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10	사랑,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붓다, 이 세상에 나투신 이유?
고따마 붓다
[성명지음, 도서출판 문학과지성, 22000원]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전등록 전5권 / 불교 무문관 / 불교 벽암록 / 불교 천부경
불교 금강경 / 불교 심심명 / 불교 중도가 / 불교 반야심경
불교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불교 환단고기 전5권
불교 선가귀감 / 불교 법웅선사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 희다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한글한문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용 소개

-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써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화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참정을 하는 청사"는 "2정음=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2정음=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성

- 제 1권 : 예경:각정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찬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목 방정 -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도,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정제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면이 쌓이고 관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랭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